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대학의 대행스님께 어쨌든 상담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낸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마음공부 하면서 응용 안하면 목적

15면에서 계속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는 본래 죽는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본래 이미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죽은 환상과 같이 그냥 가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나라는 이 껍데기에 집착을 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말이냐 될 노릇입니까? 그러니 꼭 인심을 하고, 죽든지 살든지,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주인공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고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는,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문 없는 문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게으르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저는 2004년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주위에서는 명문 학교에 꼭 입학해야 한다고 하고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특히 게으르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모든 나쁜 습을 주인공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관하는데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세요.

그래 그렇게 자신의 게으른 모습을 알고 있다면 '게으르지 않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것도 오직 당신뿐이야.' 하고 항상 주인공 자리에 맡기고 몸으로는 부지런히 뛰면서 생활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시름을 볼때도 어떻게 이것저것 다 버리고 편안하게만 하겠습니까만, 편안치 못하든 편안하든 나의 보이지 않으면서도 너무나 역력하게 들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는 '나'에게다 놓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할 때에 내가 했고, 어떤 것을 할 때에 내가 안 했고가 없다 이 소리죠. 그런 까닭에 주인공이 나의 모든 기능을 합해서 시름을 보게도 하고 학교도 가게 하는 거니까 '당신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아. 나를 가장 유용한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도 당신뿐이야.' 하고 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자기 보배를 자기가 응용 못하고 바깥으로 쫓달리면서 자꾸 내가 무엇이 모자라는데, 내가 어떻게 돼야 하는데 하고 고민하고 사랑으로만 걱정을 하니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봐야 하고, 책을 찾아 봐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모두를 볼 때 모두 자기 할 탓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간략하게, 모든 게 자기 할 탓이다. 자기가 하는 대로 지혜로운 삶도, 선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위의 사람들이 "너는 꼭 어디를 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 휩싸여서 "그래 나는 남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학생의 근본에 지극하게 관(觀)을 하세요. '나를 수역결을 통해서 이끌어 온 당신, 오직 당신만이 내가 인생에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까지 성숙해지는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다.' 고 믿겨주세요.

왜냐하면 나의 근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나와 언제나 함께 해온 나의 근본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공부하세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는데...

스님,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머니와 싸

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을 하면서도 계속 화를 내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시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스님, 전 이제 20살이 되었는데도 이러한 제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들을 모두 놓을 수 있을까요? 스님과 이야기는 한번도 한 적은 없지만 스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되든 안되든 그렇게 관하고 마음 쓰는 학생이 너무 대견스럽군요. 그렇지요. 부모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니 눈물도 나고 화도 나겠지요.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놓아야 합니다. 이 관한다는 것은 되든 안되든 일

생활에서 이익중생 하려면...

저는 10년째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30대의 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하는 것은 곧 나 혼자만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를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공부의 진전도 되고, 이익중생(利益衆生)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도 그렇고 어느 회사를 운영해도 그렇고 이 마음공부를 진실하게 하셔서 한 생각을 자유롭게 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쓰지도 않고 그냥 한다면 그건 목석입니다. 목석! 생각을 달리 해보고 다녀야죠.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여기 와서 듣고는 그 순간만 그런가 보다 하고는 그냥 왔다갔다하면 안됩니다. 학생이 책가방만 끼고 학교에 왔다갔

코 해야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게 목석 아닌 목석이죠. 유위법만 취하고 사는 사람들은 좀 마음으로 무위법을 활용해 보라 이겁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익 중생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관을 할 때 그냥 나의 안위만을 위하여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이 나와 상대가 모두 이익되게 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잖아.' 하고 관한다면 자절로 그 마음의 폭이 점점 넓어져서 나와 남이 진정 차별이 없는 그 길의 맛을 보게될 것입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점은

부처님께서 부처와 중생이라고 나누어서 부르셨는데 어찌해서 둘로 나누셨으며 그렇게 부처와 중생으로 나누어지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생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들고 자기가 보고 또 생각 일어나는 것

사용소서, 정말로 무한 능력을 가진 나가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벌써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어리석은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 보이는 무한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이 있고 또 알고 싶어하는 것이 그 능력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듣고 보고 생각하는 당체가 어디쯤 생각합니까? 그건 다름아닌 자기 근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탐·진·치 삼독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을 살펴보니 모두에게 불성이 있는데 어리석음의 어두움에 가려 보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그 수많은 가르침으로 제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 자리 즉 주인공에서 일체가 나오는 것이니 일체를 나온 그 자리에 되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카세트 테이프에 노래를 녹음했는데 그 노래를 지우고 다른 노래를 녹음하려면 다시 거기에 녹음을 해야하는 것처럼, 거기에 중심을 세우고 생활 자체를 맡기는 노력을 하세요. 잘된 일은 감사하게

'관' 할때 되든 안되든 일체를 믿고 놓고 지켜볼 뿐 '잘 안된다' '늦게 된다' 사건 일으키면 안돼

놓고, 또 잘 안되거나 힘든 일들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맡겨 놓으세요. 그렇다고 욕심을 부린다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심, 사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살심, 중도를 행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또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놓고 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다보면 놓는 자리마저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전까지는 주인공이라는 자리에 맡기세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고, 어린이들도 곁에 엄마가 있어야 안심하고 노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인공을 찾기 위한 관법

저는 현대불교신문을 통하여 큰스님의 법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찾는 공부라 하여 틈만 나면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마음을 알고 보니 모양도 없고 법새도 색깔도 없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있다고 하려고 들리고 없다고 하려고 어긋난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주인공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지요?

부처님께서도 "내 아님이 없고 내 이름이 없네니라.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는 까닭에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되었을 때 부처라고 하겠느냐? 부처라는 이름 없는 것이 부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똬'고, '내가 어디서 왔다.' 하고 찾으려면 백 날이 가도 못 찾아야. 단 오분을 관한다 하더라도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찾기 위한 관법은 누웠을 때든 서 있을 때든, 내가 좀 앉아서 참구에 보겠다 하고 앉았을 때 '주



그림 · 최주현

고정된 '나' 없는데 알면 짐착 벗을수 있어 탐·진·치로 인해 근본자리 망각하고 살아

체를 믿고 놓고 지켜볼 뿐이지 거기에 다시 사견을 일으키면 안됩니다. 왜 그러는지 알겠습니까? 현재의 나는 시지일 뿐이예요. 수역결을 이끌어 온 나의 주인을 위로는 모시고 안으로는 수많은 내 안의 잠재된 의식들을 재생시킬 수 있도록 순간순간을 놓아나가는 그런 진실한 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다. 늦게 된다.' 고 분별해서 주인을 믿지 못하는 시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렇게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발전입니다. 그러나 자책하지 말고 부모님이 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극하게 마음을 내고 관하세요. 물론 시일이 빠르고 느리고 하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지극한 학생의 마음은 분명히 부모님 안에 내재해 있는 주인공에 전담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 번에는 모습으로는 화를 내더라도 마음은 고요하여 동요가 없는 그런 평온한 마음으로, 껍데기의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안의 부처님, 주인공을 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바래요.

다하면서 그냥 강요만 들고 집에 와서 그걸 한번 다시 공부를 안 해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응용을 해보아주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다니는 사람은 은행에 다니는 사람대로, 회사에 다니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대로, 기자면 기자대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우리 반에서 공부를 못하면 내가 적할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자기가 안 찍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공부예요. 하지만 공부가 아니라 수시로 모든 것이 공부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자기가 허 나가야지 누가 해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체구가 되는 거죠. 자기가! 감응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대로 돌아가네!' 그대로 돌아가니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닦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보지 않는 사람, 그냥 문맥없이 왔다갔다하면서 해보지 않는 사람,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아예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분명

을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생이라 이름한 겁니다. 또 부처님이라는 뜻은 자기가 고정돼 있지 않은 나간 마음조차도 배꼽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처음 단전호흡을 할 때는 배꼽 밑에 두라 그런데도 그 배꼽까지도 송두리째 빠졌다 이 소립니다. 송두리째 빠지니까 그것이 나라고 내세울 게 없이 공한 이치라는 거죠. 고정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했듯이 귀로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눈으로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고정되게 느끼는 게 하나도 없죠. 말하는 것도 고정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행하는 것도, 모든 면에서 내 몸이, 어떠한 것을 내 몸이라고 할 수 없게끔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 그러면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정된 삶을 사는 모습을 일러 중생이라고 하였고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자유인의 삶이기에 부처라 이름하는 겁니다.

무한능력 가진 '나'가 있습니까

늘 건강하시고 육체 보전하시어 방황하는 자회들에게 가르침을 주

가복본 안목을 밝힘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디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45신 288쪽
 값 6,000원
 저서인